‘포스트 후진타오’ 전면 부상 주목

■中 17차 全大 오늘 개막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15일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당총서기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로, 17전대 대표 2천200여명,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전대 개막식을 거행한다.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는 17전대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폐막했으며 후 주석의 집권 1기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16기 7중전회는 이번 회의에서 17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17전대 의제 등을 결정했으며 당장(黨章) 수정안에 대한 검토작업도 마쳤다.

이번 17전대는 역대 당대표대회 관례에 따라 15일부터 일주일간 회의를 하고 21일 폐막할 것으로 보이며 폐막 다음날인 오는 22일 17기 1중전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계 원로들과 최고지도부는 22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단 등 지도부 인선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 동안 끊임없이 막후교섭과 토론, 힘겨루기를 해왔다.

중국 전문가들은 “후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한 이번 권력투쟁의 결과는 특정 정파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계파별 권력분점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는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의 양자 대결구도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중국 공안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을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리커창·시진핑 양자 대결 구도 될 듯
5년간 中 이끌 후진타오 2기 지도부 구성

이들은 “리커창 당서기와 시진핑 당서기 모두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단에 입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쟁을 통해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5년 후 대권을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때 중국의 2인자로 후 주석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했던 쩡칭홍(68) 국가부주석은 정년을 이유로 은퇴하고 대신 측근들에 대해 요직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7전대에서는 또 공산당 당장을 개정해 후 주석이 지난 6월25일 중앙당교에서 주창한 신정치이론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당장에 삽입하게 된다. /베이징=연합뉴스

■中 17차 全大 관전포인트

정치국 상무위원 선임 권력투쟁 관심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권력은 당 대회격인 전국대표대회에서 나온다.

5년마다 개최되는 전대가 15일 제17차 대회를 맞는다. 17전대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제 2기 집권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노선을 결정한후 지속돼온 자본주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정책 노선의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의 결정여부와 정치국 상무위원의 변화, 그리고 쩡칭홍 국가 부주석 등의 거취가 이번 17전대의 관전 포인트이다. 또 당내 민주화 추진 속도와 개혁 논쟁에도 이목이 쏠린다.

◇**차세대 지도자**=가장 큰 관심사는 제5세대 지도자의 부상 여부이다. 현재로선 5세대 지도자의 선두주자로 리커창 랴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 서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지도자 군에 올릴지가 주목된다.

후 주석은 자신의 직계인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출신들로 구성된 톈파(團派)인 리커창을 차세대 지도자로 못을 박고 싶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고심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을 차세대 지도자로 미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추측이다. 따라서 지도부가 확실한 결정을 유보한채 리커창과 시진핑 두명을 후보군에 올려 앞으로 업적을 보아가며 결정을 한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변화**=현재 9명인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유지될지 종전의 7명으로 축소될지의 여부조차 아직 추측을 불허한다.

확실한 것은 후주석(64),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66), 원자바오 총리(65)의 유임, 그리고 자칭린(67)정협주석의 퇴진뿐이다.

정년(정치국 상무위원은 70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망한 황쥐(부총리)와 함께 뤄간(72·중앙정법위 서기), 우관정(69·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두 명은 퇴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후보로는 리커창, 시진핑 두 후계자 후보 외에 장더장(61) 광둥성 서기, 왕자오궈(66) 전인대 부위원장, 위정성(62) 후베이성 서기 등 5명이 치열한 막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와 개혁 논쟁**=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죽의 장막을 거뒀지만 아직 민주주의 국가 수준과는 현저한 격차가 있다.

차세대 지도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쟁구도 속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어 이번 17전대에서 당내 민주화와 정치개혁이 이뤄질지도 관심거리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상품 관세 양허안 등 공방 예고

상품 양허(개방)안을 놓고 벽에 부딪혔던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4차 협상이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양측은 지난 달 3차 협상 말미에 밝힌 대로 이번에는 FTA의 핵심이자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품 양허안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서비스·투자분야와 원산지, 지적 재산권 분야만 논의하는 ‘압축-집중형’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韓-EU FTA 4차협상 돌입

지적재산권·비관세 장벽·지리적 표시 ‘첩첩산중’

◇**관전 포인트는 한미 FTA와의 비교평가**=3차 협상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돼 열리는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상품 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 여부다.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빼면 교역액 기준 80% 가량의 상품 관세를 협정 발효 3년내 철폐하겠다고 밝힌 EU측은 3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내민 수정 양허안의 3년내 관세 철폐율이 68%인 점을 들어 “미흡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3차 협상부터는 한미 FTA와의 균형,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 주장까지 들고나와 우리측을 압박했다.

결국 양측은 4차 협상에서 한미 FTA에 비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놓고 그 타당성과 효과, 개방시 민감성 등을 비교 평가해 보기로 합의했고 이제 서울에서 서로의 보따리를 푼다.

◇**韓, 방어전선 길고 공격목표 노출**=문제는 이런 형태의 협상이 전개될 경우 우리측 방어선은 너무 긴 반면, 공격목표는 점령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미 FTA 합의안을 기준으로 우리측이 미국에 비해 EU에 불리하게 내준 품목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약 105억 달러, 반대로 EU측이 한미 FTA에서 미국이 한국에 양보한 것보다 불리하게 제시한 품목의 교역액이 93억 달러선이었으나 유로화의 강세로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100억 달러 수준으로 비슷해진 상태다.

하지만 논의대상 품목의 교역액이 비슷해도 전체 품목 94%의 관세를 3년내 철폐하는 한미 FTA와 비교하면 우리측이 방어해야 할 품목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은 민감품목을 포함한 200여개 품목의 개방 방향을 담은 수정 양허안에 EU측이 여전히 “한미 FTA 결과와 차이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힘든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측은 돼지고기, 낙농품 등 민감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수입쿼터할당, 계절관세 등을 섞은 예외 조치를 제안하는 한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도 주장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지리적 표시도 험로**=상품 양허안의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분야의 논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낙관하기는 이르다.

김한수 대표는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자동차 표준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 지적 재산권 등도 쉽지 않다”면서 “EU가 최근 지리적 표시 보호(농.특산물이 지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때 인정되는 지적 재산권)와 관련해 아주 높은 수준의 제안서를 보내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욕필 일부 단원 평양공연 반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일부 연주자들이 평양공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뉴욕필의 일부 단원들이 북한정권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평양 공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미국으로 망명한 미국인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이 링크된 전자메일을 단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이어린 브레슬로는 북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신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지금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방북단의 설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들은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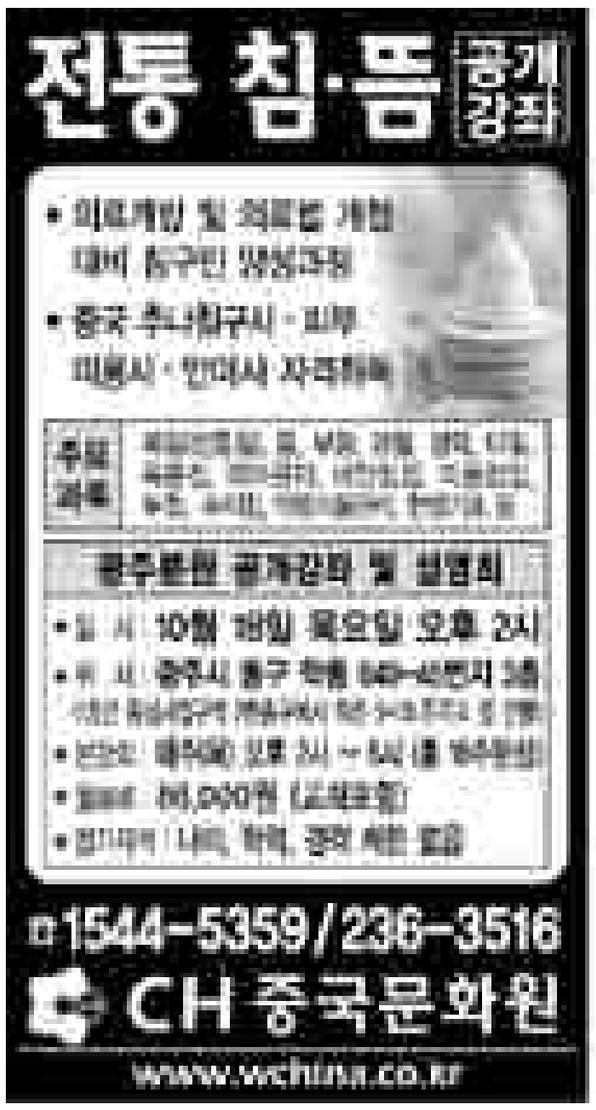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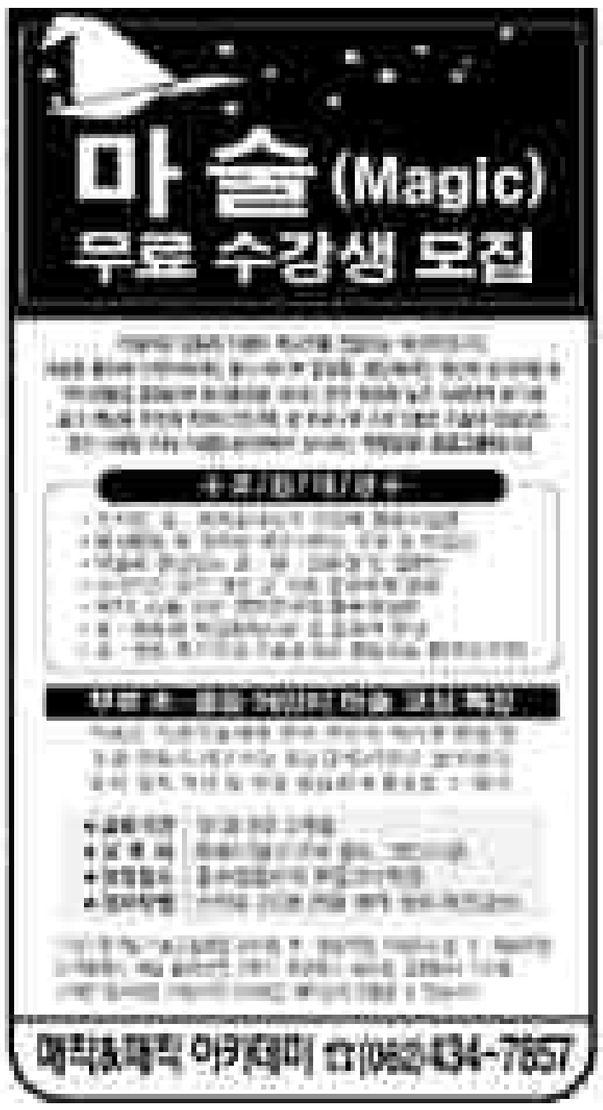
한편 뉴욕필은 단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빠르면 한달 정도 뒤에 평양공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中情, 日 야쿠자 통해 DJ 암살 검토했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한국정부가 일본의 야쿠자 조직을 통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일본의 교도 통신이 1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 전 대통령이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기 전에 야쿠자 조직에 김 전 대통령을 살해할 것을 의뢰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으로 납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재직했던 한 직원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위원회는 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대부분 중정 요원들로 구성된 20명 이상에게 김 전 대통령의 납치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한 중정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직원은 중앙정보부 측에서 김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짓고 대신 서울로 납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덧붙였다. /교도=연합뉴스